

5년전 실종 광주네 모녀 담양에서 숨진 채 발견

당시 남편에 유서 남겨... 동반 자살 가능성

지난 2003년 4월 실종된 어머니와 딸 3명 등 4명이 담양의 한 저수지에서 유골상태의 사체로 발견됐다.

17일 낮 12시에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 대아저수지 바닥에 엑센트 승용차가 있는 것을 주민 이모(49)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119구조대는 승용차를 견인하고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승용차 안에서 장모(여·실종 당시 31세·광주시 북구 용두동)씨와 장씨의 큰 딸 이모(당시 7세)양, 둘째 딸(· 4세), 셋째 딸(· 2세) 등 일가족 4명의 유골을 발견했다. 승용차의 유리창은 깨져있었고 지붕도 찌그러진 상태였다.

신고자 이씨는 "며칠 전부터 저수지 물 속에 흰색 차체가 눈에 띄어 버려진 차량으로 생각했는데 오늘은 뒤틀린 차체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했다"

고 말했다. 장씨의 승용차는 최근 비가 오지 않아 저수지가 말라가면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5년여 전인 지난 2003년 4월 5일께 광주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딸 3명을 승용차에 태우고 나간 뒤 행방이 끊겼으며, 경찰은 장씨 가족들의 실종신고에 따라 수사를 벌였었다. 실종 이후 장씨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의 사용 흔적은 전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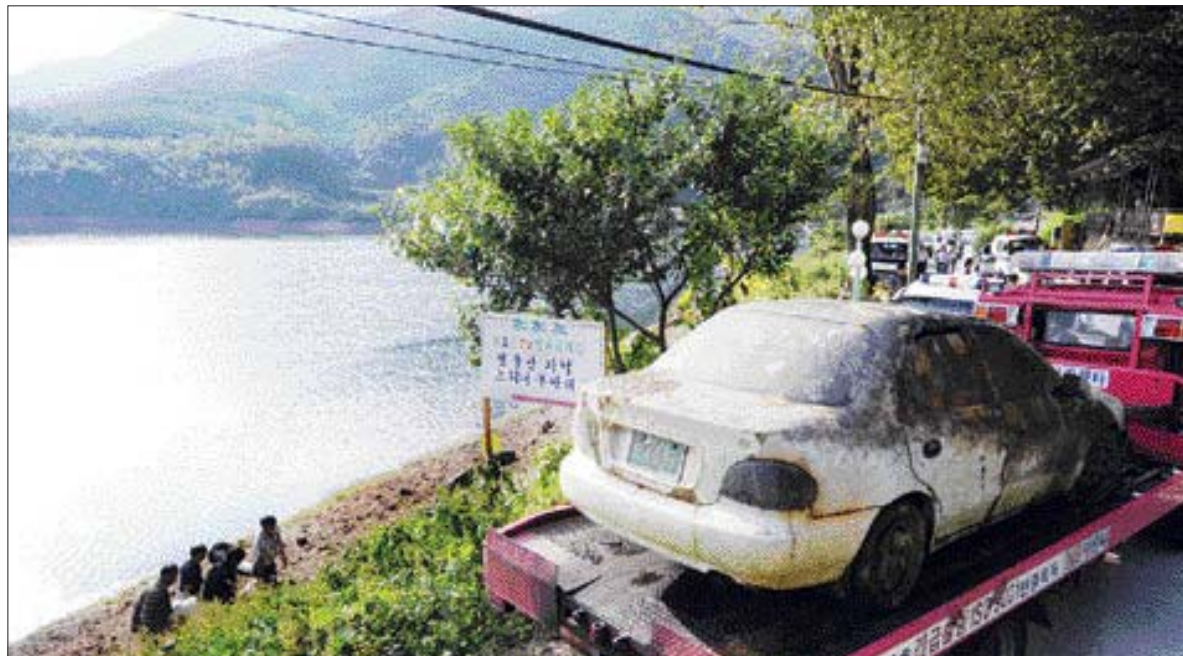
장씨는 실종 직전 남편에게 "내 심정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죽음으로 빚을 갚겠다. 아이들과 함께 떠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지 3장을 승용차로 전국에 수배하고 장씨의 고향인 담양 일대 야산을 수색했으나 이들의 행방을 찾진 못했다. 경찰은 당시 일가족 동반 자살 가능성과 함

께, 교통사고나 또 다른 범죄에 의한 희생 여부에 대해 수사를 폈었다.

일가족 사망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장씨가 평소 남편과 자녀 교육 문제로 자주 다투고 유서로 추정되는 글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동반자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장씨의 남편 L씨는 "실종 당일 다툼 뒤 편지지에 글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 아내가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은 없으며 특별한 자살할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북부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범죄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려내기 위해 승용차도 국립수에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인현주·이종형 기자 ahj@



17일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 대아 저수지에서 인양된 엑센트 승용차. 승용차 안에서는 지난 2003년 4월 5일 실종된 장모(여·당시 31세)씨와 딸 이모(· 7세)양 등 일가족 4명의 시신이 유골 상태로 발견됐다. /위리창기자 jrwi@

프라임그룹 회장 동생 횡령혐의 체포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노승근 부장 검사)는 17일 프라임그룹 백종현 회장의 동생 백종진(48) 벤처산업협회 회장을 횡령 및 배임,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동생 백씨는 코스닥 상장회사 3곳에서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르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씨가 한때 대표이사로 재

직했던 프라임그룹 계열사 가운데 코스닥 상장회사 1곳과 그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께 각각 인수한 회사 등 3곳에서 자금을 유용하고, 지난 2005년 대표로 재직했던 프라임그룹의 또 다른 상장회사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남수

김재균 의원 부인 사전 영장

의장선거 관련 '뒷돈' 받은 혐의

광주 북구의회 의장 '뒷돈 선거' 의혹을 수사중인 광주지검은 의장 후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의 부인 주모(55)씨에 대해 1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광주 북구의회 후보기 의장선거를 앞둔 지난 4~5월 최은초(63·구속) 현 북구의회 의장에게 8천만원을, 의장 선거에서 떨어진 김모(여·67) 북구의회 의원에게 3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2명의 의장 후보가 '의장 선거권을 가진 북구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남편에게 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씨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했으며, 받은 돈 대부분을 가사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씨가 최의장으로부터 받은 돈 8천만원을 서울에 집을 얻는데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받은 돈 대부분을 가사비용으로 썼다고 진술

한 만큼 남편인 김 의원이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받은 돈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됐는지 여부와 김 의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주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3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김재균 의원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씨는 대가성을 시인하지 않았고 일관되게 상식적인 개인간 채무관계라고 주장했다"면서 "애당초 이 사건은 허위사실에 의한 음해 세력의 진정에서 출발한 것으로 사전 영장 청구는 정치적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북부경찰 의경 집단 구타

3명 입건... 관련자들 징계키로

광주의 한 경찰서에서 후임 의경이 선임자들에게 구타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북부경찰은 17일 북부경찰 방범순찰대 소속 A(21) 상경 등 3명이 지난 3일 오후 5시에 청사 내 담장 주변에서 후임 의경 3명을 폭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 상경 등은 방범순찰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후임 의경 10여명을 벽에 세워 놓은 뒤 "근무에 태만하다"며 이들 3명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행 장면은 한 시민이 경찰서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비디오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경찰은 A 상경 등 3명을 형사입건하고 이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며 이들이 속한 방범순찰대 소대장 등 지휘관과 사건 당일 당직관 및 상황실장 등 관련 경찰관들도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 외에 다른 구타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과거에도 의경들 사이에 구타가 행해졌을 수 있다고 보고 경찰서 소속 의경들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형 기자 galee@kwangju.co.kr

현역 육군 부사관이

여중생 2명 성폭행

현역 육군 부사관이 여중생들을 성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육군 모 부대에 따르면 이 부대 소속 A(41) 중사가 최근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가솔 여중생인 B(14) 양 등 2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A 중사는 한 달 전 PC게임방에서 이 여중생들을 알게 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대 관계자는 "A 중사가 조사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며 "군 헌법대에서 자제할 경위를 조사해 A 중사를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도로 설치·관리 부실로 교통사고 사망

"전남도·건설사, 유족에 배상하라"

도로 설치·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이 인정돼 전남도가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17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전남도와 L건설(항소인)은 최근 윤모(여·47) 씨 등 3명(피항소인)이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 측의 화해권고를 수용하기

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L건설은 이달 말까지 윤씨 등에게 약 6천600만원을 연대 배상해야 한다.

윤씨의 아들은 지난해 2월 16일 새 도로 건설(항소인)은 최근 윤모(여·47) 씨 등 3명(피항소인)이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 측의 화해권고를 수용하기

는 구간이었는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해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사고 지점 부근은 도로가 확장되지 않은 채 편도 1차로로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컸지만 가로등이나 충격흡수 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윤씨 등은 도로의 관리청인 전남도와 확장공사 시공자인 L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심에서 "전남도의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과 L건설의 교통사고 방지 대책이 미비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6천6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전남도와 L건설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605) 김장동



다 좋은 건국·산업자금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막 및 상담관행

"경적 울렸다"며 조폭이 주먹질

○광주동부경찰은 17일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 등을 폭행한 광주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손모(21)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판 3명을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 달 24일 새벽 1시50분께 광주시 동구 황금동 콜박스 사거리로 지나가던 중 운전자 김모(26)씨가 "길을 비켜 달라"며 경적을 울리자 김씨와 함께 타고 있던 이모(25)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내 길 걸 거네, 김씨가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났었다"고 진술

○경찰은 "가해자들이 조폭 같았다"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비슷한 인상착의의 조폭 20명에 대한 사진 선별작업을 통해 이들을 검거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 health product. Title: '당신의 발은 건강하십니까?' (Are your feet healthy?). It features images of feet and various health-related icons.

Advertisement for 'i엘리시아' (iElysia). It includes a logo, website address (www.ielysia.com), and a list of services like '상품권 판매' (Premium rights sale) and '독한시, 직종 도입 및 행사' (Direct sales, job introduction, and events).